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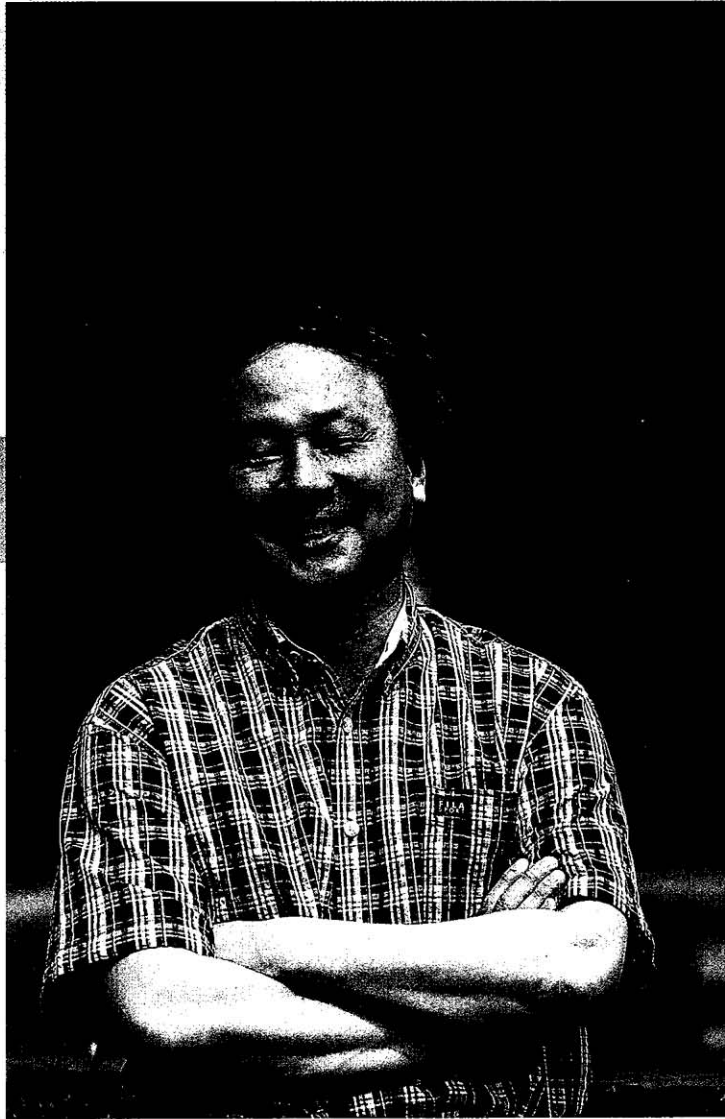


만나고 싶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과 어느 직장인의 변화

넥타이 부대에서 노조 위원장으로

이용진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시대를 보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나간 시절 동안 민주주의와 독립된 자주 국가를 형성하려는 투쟁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좌절의 경험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패배감을 안겨 주었으리라. 정치나 사회 현실에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의 안락함에만 만족하고 몰두하는 자기기만

적 태도는 어쩌면 이 같은 패배의식을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출구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부당한 현실에 대한 숙명적인 수용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던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커다란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신이 참다운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름 아닌 87년 6월 민주항쟁이었다. 6월 민주항쟁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사항 중의 하나는 화이트칼라층

이 운동 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네티아 부대'로 불리워진 그들은 오랜 패배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이어지는 87년 7~9 노동자 대투쟁 기간 동안 사무직 노조의 건설로 나아가게 된다. 현대사의 굴곡을 자기 삶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용진 전 문예진흥원 노조 위원장(41)을 만나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개인의 삶의 궤적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역사의 흐름과 개인의 삶은 어떻게 만나는가

1980년에 영문과에 입학한 그는 영어연극반 활동을 계기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87년 2월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에 공채로 입사하게 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에게 당시의 회사 상황은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근무 조건, 결혼하면 퇴사해야만 하는 여직원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직장 분위기 등등. 막연하게 그가 꿈 꿔 왔던, 그리고 이상으로 생각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어찌랴!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으려니 하는 생각으로 그는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그에게도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도 현실은 더 이상 묵묵히 받아들여만 하는 운명이 아니었다. 민주화 되어 가는 사회에 걸맞게 직장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는 동료들과 함께 노조 건설을 추진한다.

"1972년에 설립된 문예진흥원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임직원이 특채 출신이어서 공채 출신은 드물었습니다. 공채 사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첫 번째 노조 결성 시도는 당연히 직장 내에 존재하던 공·비공



1994년 15일 철야농성으로 당시 문체부의 낙하산 인사를 최초로 막아냈다.

채 간 갈등,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계없이 정부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 온 보수적인 임원들의 색깔논쟁을 통한 협박과 회유로 인해 결국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6월항쟁 통해 패배감 극복하고 노조 결성

그러나 좌절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도도한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 흐름은 점점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문예진흥원 직원들도 1990년에 마침내 노조를 결성하는데 성공한다. 물론 그 출발이 순탄했을 리는 없다.

“당시 170여 전체 직원 중에 조합원은 4,50명으로 주로 공채 중심의 직원들로 이루어졌고, 여전히 비공채 직원들의 노조 가입은 넘어야만 할 큰 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임원들의 색깔논쟁과 방해 작업은 집요하게 계속되었고, 이러한 방해 작업의 배후에는 정관상으로 지도·감독기관인 당시 문화부의 압력이 있었습



만나고 싶었습니다

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또한 커다란 문제였다. 예컨대 문예진흥원과 관계가 있는 많은 예술인들은 ‘예술 분야에 웬 노조냐’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를 불온시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태도는 노조 결성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노조 활동의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점차 극복되어 갔다. 노조 결성 후에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함께 누리게 된 비조합원들도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노조 결성 시 발기인과 대의원으로 참여했던 그가 노조 위원장을 맡게 된 1992년에 문예진흥원 노조는 노조 가입 대상자 전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뤄낸다. 1994년까지 노조 위원장을 지낸 그는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문예진흥원을 자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제일 과제”로 삼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1994년에는 그 때까지 관행으

로 굳어져 있었던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15일 동안의 철야농성으로 막아 내었다. 이는 낙하산 인사를 막아 낸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한 밑거름은 그의 성실성에 기초한 활발한 조합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믿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강한 조직력이었다. 그는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것을 활동의 기본으로 삼았다고 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다양한 조합원 교육, 조합원 MT, 그리고 각종 노동자 집회의 공동 참여 등을 조직해 내었다.

노동자 문화활동 통해 민중예술의 가치와 의미 느껴

그는 노조의 활동이 단위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사용자 측에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당시 문예진흥원 노조가 가입해 있던 상급단체인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이하 전문노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전문노련 문화국장으로서 활동하면서 1992년과 93년, 그리고 94년에 세계노동절(May-day) 전야제의 사회를 맡아보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사무직 연맹뿐만 아니라 생산직 노조와도 문화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소위 민중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것의 독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그는 “이전에는 고급예술, 즉 공연장 공연 또는 제도권 예술에만 관심을 기울였는데 고급예술과 민중예술의 구별은 인위적인 것이며 자연스럽게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둘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현재 공연예술팀장이라는 그의 업무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10월 20일에 거행되는 문화의 날 행사를 2000년에 제도권 예술과 민중예술의 각각 대표 단체



소외된 사람들과 문화적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와 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내었고, 이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자 문화활동을 할 당시에 인연을 맺었던 민중 예술 관계자들과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다.

문예진흥원은 1990년부터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 외에도 일반인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객을 찾아다니는 거리공연, 지역공연, 장애인 내지 양로원 공연 등의 문화활동을 벌여왔다고 한다. 노동자 문화활동을 경험한 그는 특히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과 문화적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94년에 부서에 다시 복귀한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2000년에는 총무부 인사팀장이 되어 노무관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업무의 성격 상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다. 당시의 심경을 그는 이렇게 털어 놓았다.

“노조 활동을 잘 알기에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당시 노조 위원장이 입사동기였기에 이상적인 노사관계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지요.”

그래서 노조 측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문예진흥원의 자율성과 연관된 문화관광부와의 구조적인 문제는 자신의 역량 밖의 문제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 측과 노조 사이에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하는 그의 태도나 말에서 여전히 노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는 다시 조합원이 된 그에게 요즘을 갖고 있는 생각을 물었다. “노조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팀원들에게도 노조 활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예총과 민예총이 상호 교류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확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그는 넥타이 부대와 노조 위원장을 거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직장인과 시민으로 거듭나게 된다.

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타인과의 긍정적 만남 통해 의미있는 삶 영위

이용진, 그는 사회에 그저 수동적으로 편입된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시작하여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넥타이 부대에서 노조위원장으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일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활동의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자각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직장인과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와의 만남에서 한 개인의 삶이 우연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관계와 인연을 통해서 그 지평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느낌은 바로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타인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현대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파편화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편집부〉